

그를 만난 뒤, 매일 누군가의 환승 길을 고민하게 됐다

아주경제

홍승완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비장애인들로 인해 함씨는 이날 20분을 기다리고 나서야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었다. [사진=함박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장애인 유튜버 함정균씨 “지하철역 환승만 30분...결국 카메라를 켜습니다”

‘어쩌다 장애인’이 된 그와 어쩌다 인터뷰

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 했지만, 누구보다도 손으로 많은 걸 표현했습니다. 눈높이는 저보다 조금 낮았지만,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야는 더 넓었습니다. 네, 저의 첫 장애인 인터뷰이 함정균씨(49) 이야기입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인 유튜버를 대상으로 열린 ‘크리에이터 위크& (CREATOR WEEK&)’ 행사장이었습니다. 방문객 대다수가 1020 세대인 장소에 등장한 40대 남성, 비장애인들 속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액션 캠을 비롯해 각종 촬영 장비가 주렁주렁 달린 전동 휠체어. 많은 인파 속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장비를 직접 휠체어에 설치하신 건가요? 멀리서 봐도 보통 휠체어는 아닌 거 같아요.” 휠체어가 돋보인다는 말로 다가서자 함씨는 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는 유튜브 채널 ‘어쩌다 장애인, 함박TV’를 운영하는 5년 차 유튜버였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채널명에서도 알 수 있듯 함씨는 말 그대로 어쩌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갑작스레 장애를 갖게 된 사연이 어떻게 되실까요.” 장애를 갖게 된 계기를 조심스럽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함씨는 굳은 손으로 목 뒤를 가리켜 “중앙분리대에 머리를 박았다”며 멧쩍은 듯 웃었습니다.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 대신 박았다고 표현한 함씨. 당시 상황을 끄집어내야 하는 질문이 미안해 머쓱해하는 기자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의 세심한 배려였죠.

그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2013년 3월10일 중앙분리대에 머리 충격. 10년간 마술사로 활동하며 세계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전도유망했던 그는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속초로 향하던 길에 먼저 넘어진 일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머리와 경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경추 3·4·5번이 손상돼 팔, 다리는 마비됐고 결국 전동휠체어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 그의 일상은 느려졌습니다. 400타였던 타자 속도는 60타가 됐고, 도보 5분 거리의 편의점을 가는 데는 평소보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마술사로 활동했던 함정균씨 [사진=함박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꾸준한 재활로 팔,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오면 몇 미터 움직이기조차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온전히 설 수도 없어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필요하죠.

전동 휠체어와 한 몸이 되자 비장애인일 때는 보이지 않던 벽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장애인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 즉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5분이면 될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환승이 그에게는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두 다리 튼튼한 사람이 계단으로 1분만 오르면 될 일을 휠체어로는 10분 넘게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지하철 계단 한 구석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도 함씨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서울지하철 2



함정균씨가 사고 발생 직전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함씨는 사고로 손이 자유롭진 않지만, 재활을 통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사진=홍승완 기자]

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진동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누군가 밀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비장애인이라면 그 공포감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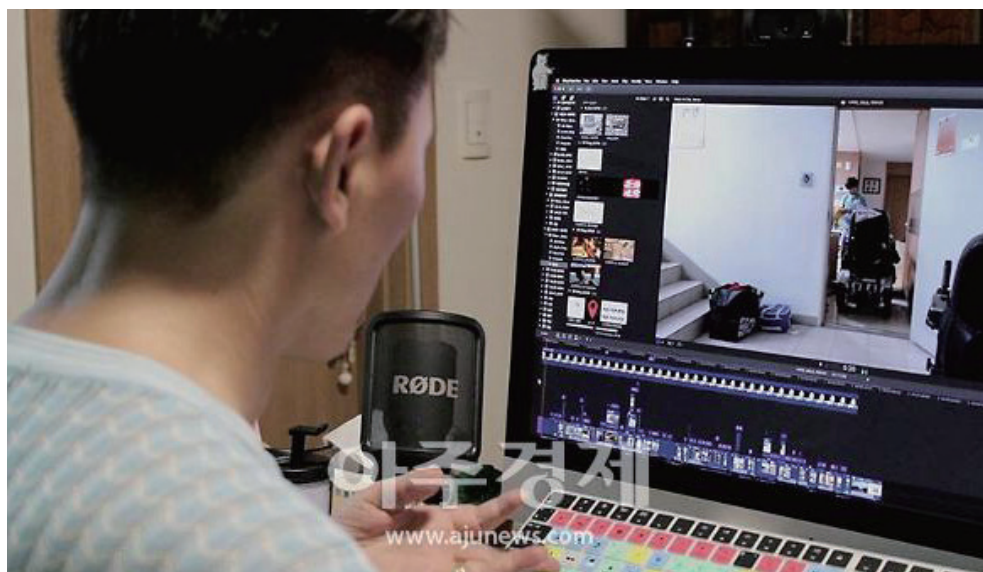
‘어쩌다 유튜버’가 된 쌍둥이 남매 아버지

그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본격적으로 지하철 환승 안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에는 ‘장애등급 조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2015년 1월까지 장애등급 2급이었던 함씨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장애 재판정 결과 3급으로 조정됐습니

다. 함씨는 “서류상으로는 몸이 좋아져 기뻐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장애등급만 변경됐기 때문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1·2급 장애인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

2년 6개월 동안 수도권 지하철 97개역 돌며 장애인을 위한 환승 정보 영상 만들기

평소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결국 장애인 콜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그에게 대중교통은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함정균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사진=홍승완 기자]



찾는 일을 비롯해 환승할 노선까지 가는 일이 버거웠기 때문이죠. 이에 함씨는 자신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지하철 97개역을 전부 돌며 장애인용 지하철 환승 정보를 담은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동영상 지도'인 셈입니다. 이날 코엑스를 찾은 것도 그의 동영상 지도 제작 활동의 일환이었죠.

그렇게 유튜버로서 시작한 인생 2막.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당시 초등학교 쌍둥이 남매의 아버지였던 그에게 유튜버는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 아내마저도 부정적이었어요. 당시 수익이 한 달에 치킨 두, 세 마리 정도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를 움직이게 만든 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이 남긴 응원 댓글들이었습



그는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진=홍승완 기자]

니다. 함씨는 자신의 영상을 본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괜찮겠다”며 고맙다고 적은 댓글을 보며 자신이 가는 길에 확신이 들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도 영상 리포팅을 돕는 등 든든한 지원군이 됐죠.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 어쩔담

함씨가 전국을 누비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대중교통 환승 안내 영상을 만든 지도 올해로 5년째.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및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한 약속이

벌써 17년이 다 돼가지만, 서울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작년 7월 기준 56.4%에 불과합니다.

서울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31.5%, 대구 34.5%, 부산 27.8%, 광주 22%입니다.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8.4%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10대 중 7대는 그냥 떠나보내야만 하는 실정이죠. 이는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인 4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42%도 당초 목표치인 45%보다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전동 휠체어 뒤에 꽂힌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홍승완 기자]

퇴한 수치입니다. 목표치를 3%나 낮췄지만, 계걸음 하는 장애인 이동권 개선 속도를 보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작년 목표 예산은 964억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은 39% 줄어든 57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목표 예산도 1041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은 37% 줄어든 660억원에 그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장애인 협회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계단형 시내버스를 막아 세운 뒤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아웃(OUT)”,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를 버스 전면부에 붙였습니다. 계단이 있는 일반 버스는 ‘차별버스’라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죠.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

지난 2001년 설 연휴 전날이었던 1월 22일, 전남 순천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70대 장애인 노부부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타고 1층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리프트 철심이 끊어지면서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흥에 사는 막내아들 집에서 하루 묵은 뒤 큰아들이 사는 서울 중계동으로 설을 쇠러 가던 길이었죠. 이 사건 이후 장애인들은 식사슬로 휠체어와 몸을 감고, 선로를 점거하며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의 결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금까지도 대중교통과 길거리, 골목 등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최근 함씨 영상을 보면 장애인 이동권을 가로막는 건 비단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만, 이 시설의 주된 이용자는 두 다리 멀쩡한 ‘비장애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함씨는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인식 부족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다 못 타겠네”, “다음에 타면 안 돼?”, “아이참 바쁘데” ... 휠체어를 탄 함씨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승객들이 몸을 이리저리 뒤틀며 나눈 대화 일부입니다. 함씨에게 화살처럼 날아드는 따가운 눈빛은 답입니다. 비단 대중교통뿐일까요. 함씨가 어렵게 찾은

건물 내 장애인 화장실은 대걸레와 플라스틱 통, 수레로 가득 차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씨는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밖을 나섭니다. 그는 ‘공익’ (公益)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인터뷰 말미에 구독자 1만 명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당시 4000명이던 구독자 수는 이달 23일 기준 9700명이 됐습니다. 그의 목표 구독자 수까지 300명을 앞둔 지금,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를 차츰 변화시키는 당신은, 전직 마술사가 아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마술사입니다” 🎩